인문학연구소 제171회 학술집담회

18~19세기 농관(農官) 설치 논의의 전개와 의의
- 수령의 권농(勸農)과 농관의 영농(營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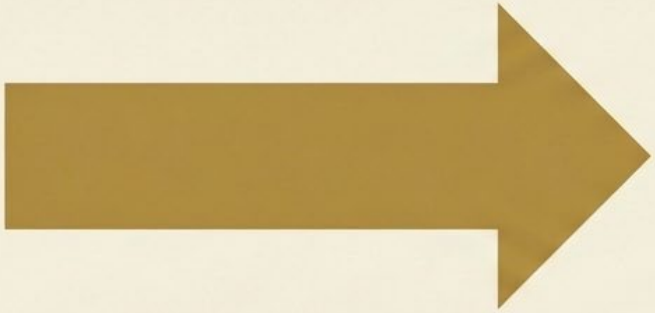
염정섭(한림대 인문학부 사학전공)

18~19세기 농관(農官) 설치 논의의 전개와 의의

조선 농정책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수령의 권농(勸農)

(행정적 독려와 이념적 지배)



농관의 영농(營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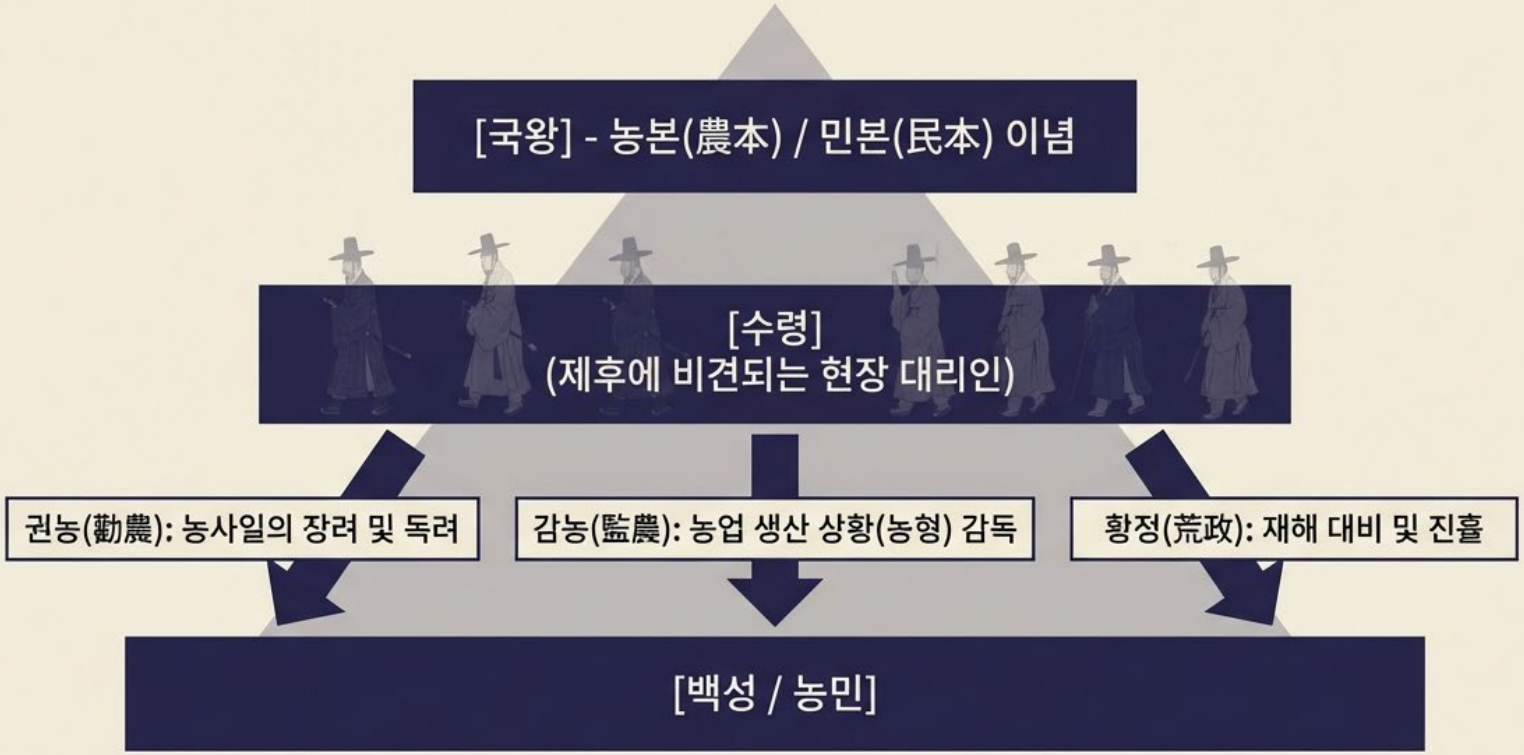
(실무적 경영과 기술 보급)

NotebookLM

목차

- 문제제기
- 농정책의 시행
- 농관 설치 논의의 전개
- 농관 설치 논의의 의의
- 맺음말

기존 체제의 원리: 목민관(牧民官) 중심의 이념적 지배



NotebookLM

새로운 대안: 실무 지식인들의 농관(農官) 설치론

NotebookLM

역사적 의의: 조선 농업체제의 근대적 이행을 위한 화두

**농관 설치 논의는, 단순한 권농(勸農)을 넘어
영농(營農)으로 나아가려 했던 치열한 체제 변동의 지표이다.**

NotebookLM

문제 제기

- 조선의 농정책(農政策): 군현(郡縣)의 수령(守令)이 중심, 농본(農本) 이념 실천
- 수령: 권농(勸農), 감농(監農), 황정(荒政)으로 구성되는 농업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군현에서 직접 실행하는 주체

→ 실제 농업생산 현장의 전문가는 노농(老農)

- 김용섭의 경영형부농론: 권농관(勸農官)으로 명농자(明農者), 역농자(力農者), 노농(老農) 등을 인재로 등용해야 한다는 제안에 주목한 것

최신 닭오리 치는法

果樹栽培法

→ 농업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만든 지도서

비료와 농약 쓰는 법

한치의 땅이라도 놀리지 말자

→ 농업기술 전수

→ 농촌진흥 농업

1970년 6월 농사달력(農曆)

→ 농작업 권장

→ 농촌지도사가 농민에게 교시

농 사 달 력

1970 새농사 새마을 새생활

6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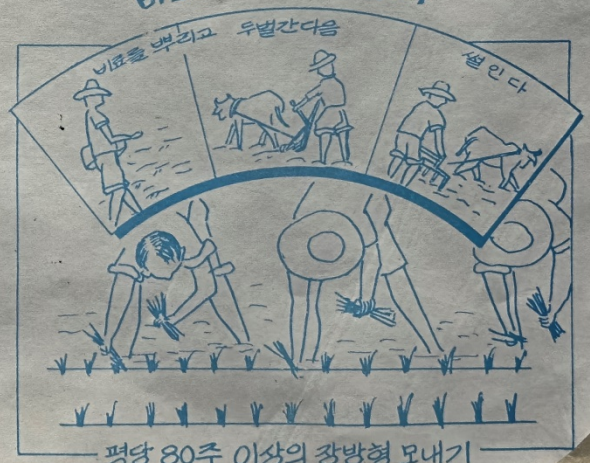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모 배게 심고 . 비료 잘 쓰는달

충청남도

- ㅇ 다수확 집단재배
  모내기 완료(재배구덜 동시에 공동으로)
  이화명충. 애멸구. 잎도열병 예방
- ㅇ 모내기는 장방형 80주 소주 탤식
- ㅇ 냉해지구는 일주일 앞당겨 모내기 완료
- ㅇ 밑거름은 복합비료로 전층시비 (질소질 40% 가리질은 50% 인산질 전량)
- ㅇ 가지거름 (모낸후 15일경에 질소질비료 30% 정도
- ㅇ 병충해 예방 (이화명충 애멸구 잎 도열병을 적기 방제 한다)
- ㅇ 건답 직파답의 배수와 제초철저
- ㅇ 제초제 시용 (모낸후 7일 이내)

비료는 전층시비



평당 80주 이상의 장방형 모내기

1972년 충남 연기군 통일벼 집단 재배단지 권농일 행사: 모내기

18-19세기 농정책(農政策)의 시행

- 농정책 : 勸農, 監農 등 구체적인 정책적인 추진 양상을 묶어 農政策으로 개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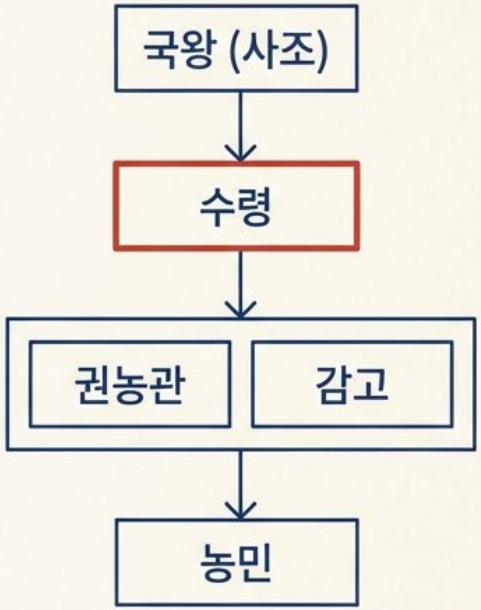
1. 농업생산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勸農
2. 수령을 통해 各 地域의 農形과 雨澤을 파악하고, 농업생산을 관리 감독하는 監農
3. 자연재해 등을 파악하고 흉년 구제에 대비하는 災政: 무상 구제, 유상 구제 등 군현에서 총괄

권농(勸農) : 생산의 장려와 인프라 구축

사조(辭朝)와 국왕의 당부: 수령은 부임 전 국왕을 알현하며 '농상성(農桑盛)'의 최우선 지상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인프라 정비: 수전(水田) 농사에 필수적인 제언(堤堰, 저수지) 등 수리 시설을 축조하고 보수하여 생산 기반을 닦습니다.

실무 조직 가동: 면리 단위로 수령을 보좌할 권농관(勸農官)과 감고(監考)를 임명하여, 종자 분급과 현장 독려 체계를 극도로 세분화합니다.



NotebookLM

조선초 수령이 권농관 임명

- 按《元典》, '州府郡縣, 擇居鄕有官職者, 定爲勸農官, 秋冬之交, 修築堤堰, 以貯雪水, 舊防毁而不修者、舊雖無而今可築者, 開具轉報, 以時築之, 毋或滲漏(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5일 정해)

→ 향촌의 관직 보유자를 권농관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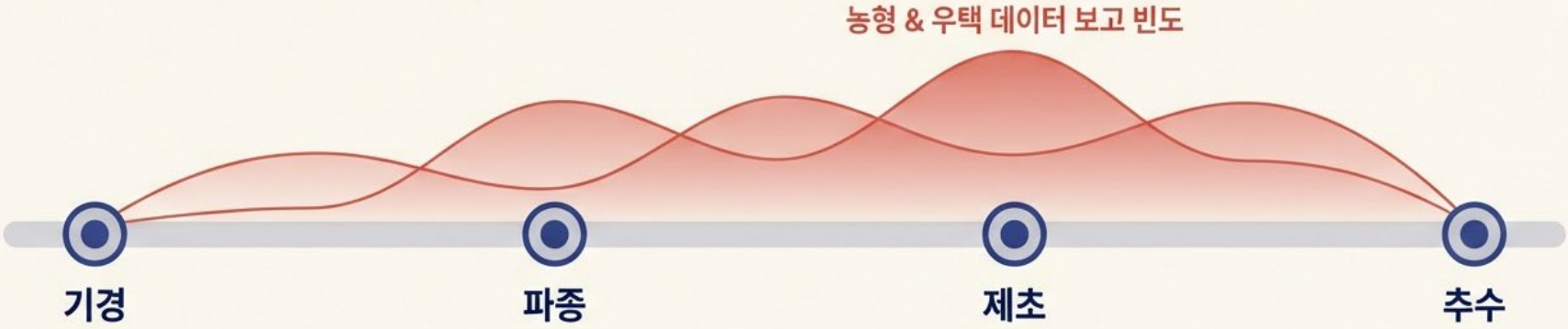
- {元典}은 경제원육전(經濟元六典)' 또는 '원육전(元六典)'이라고하는데 1397년(태조 6) 12월 26일 공포, 시행

감농(監農) : 현장 감독과 데이터 기반 행정

급시(及時)의 원칙: 파종, 제초, 추수 등 결정적인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현장을 엄격히 통제하고 독려합니다. (실패 시 수령도 율에 따라 처벌)

농형(農形)과 우택(雨澤) 보고: 시시각각 변하는 농작물의 생육 상태(농형)와 강수량(우택)을 치밀하게 기록합니다.

데이터의 수직 통합: 수령이 수집한 현장 데이터는 관찰사를 거쳐 조정(호조)으로 집결되며, 이는 향후 세금 부과와 재난 대비의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NotebookLM

지방 수령
: 監農 수행

농가시찰도(傳 김홍도)

雨澤, 강우량
파악

측우기,
1770년 제작
(강우량 측정)

측우기(測雨器) 강우량 측정법

- 영조 1770년(영조 46) : 측우기의 모양과 제작 방식을 전국의 郡縣에 내려보내 각지에서 새롭게 자체 제작할 것 명령
- 정조 1780년 : 측우기로 水深을 계측하는 세칙 마련, 하루를 3分하여 수심 3회 측정

1. 昧爽부터 午初三刻까지
2. 午正初刻부터 人定까지
3. 人定부터 翌日昧爽까지

강우량 통계: 1791년-1798년 降雨量 내역(承政院日記 정조 23년 5월 22일 기묘)

연도(干支)	측우기 수치(周尺)	강우량(mm)	비고
1791년(辛亥, 정조 15)	8尺 5寸 9分	1786.72	
1792년(壬子, 정조 16)	7尺 2寸 9分	1516.82	『日省錄』 7尺 1寸 9分
1793년(癸丑, 정조 17)	4尺 4寸 9分	933.92	
1794년(甲寅, 정조 18)	5尺 8寸	1206.4	
1795년(乙卯, 정조 19)	4尺 2寸 4分	881.92	
1796년(丙辰, 정조 20)	6尺 8寸 5分	1424.8	
1797년(丁巳, 정조 21)	4尺 5寸 6分	948.48	
1798년(戊午, 정조 22)	5尺 5寸 6分	1156.48	
8년간 평균 연간강우량	-	1231.94	

황정(荒政) : 기근 대비와 최후의 구호 복지

박정(薄征) - 세금의 감면: 감농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해를 입은 전토(재실분등)를 파악, 부세를 즉각적으로 덜어주어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산리(散利) - 공재의 분배: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하여 굶주린 백성에게 직접 식량을 무상 배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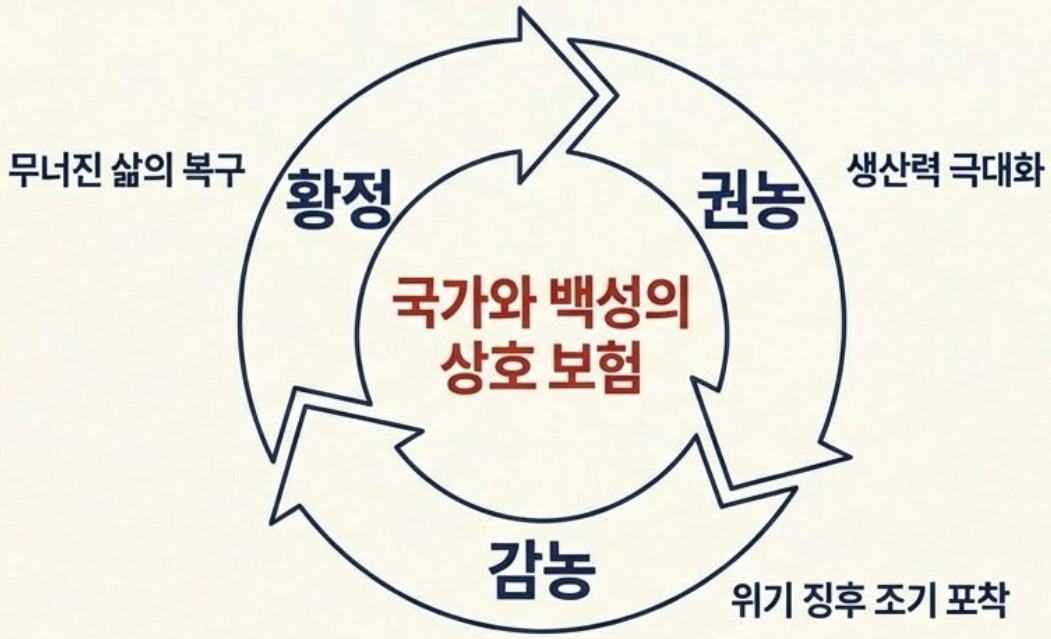
종량(種糧) 분급과 환곡: 당장의 식량뿐만 아니라, 내년도 농사를 위한 종자(種子)를 대여하여 재생산의 기반을 절대 잃지 않게 보호합니다.

NotebookLM

황정: 흉년과 구황의 시행

- 흉년 : 수재(水災), 한재(旱災), 염병(染病), 전란(戰亂) 등으로 발생
- 가뭄 - 祈雨祭 : 숙종대 국가 설행 횟수 12차례로 정리, 군현, 마을 단위로 기우제 올림
- 홍수 - 祈晴祭 : 成川, 浦落 등 커다란 피해
- 조정의 救荒政策 : 農民에게 식량과 종자를 대여(貸與)·분급(分給), 부세(賦稅) 감면(減免), 기민(飢民) 무상(無償) 구제(救濟) : 황정(荒政), 救荒書 편찬 보급

유기적 통합 시스템 : 상호 보험으로서의 국가



조선 후기의 농정책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농민의 소출을 국가가 일시 보관하고 위기 시 종자와 양식으로 환원하는 구조는,
백성의 재생산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완벽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NotebookLM

문제제기: 농업 현실의 변화와 전통적 권농의 한계

시대적 배경

- 18세기 상업적 농업의 발달과 지대 추구 심화.
- 이앙법, 시비법 등 집약적 농법의 확산으로 고도의 기술적 개입 요구.

권농의 한계와 새로운 요구

- 단순한 행정적 '권장(勸農)'만으로는 농업 생산력 증대에 한계 도달.
- 새로운 시대적 요구: 농업 기술의 적극적 개발, 실증, 그리고 보급을 전담할 전문 직임(농관, 農官)의 필요성 대두.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

'도덕적 독려'에서 '기술적 검증'으로.

NotebookLM

18~19세기 농관(農官) 설치 논의

- 국가에서 수행하는 농정의 실행, 농업 기술의 개발과 보급, 농본의 권장 등을 담당할 직임으로 농관(農官)의 설치를 요청하면서 이를 현실화시키려는 논의 등장
- 박지원, 우하영, 전라도 응지인 , 서유구의 논의 검토

→ 농업생산을 관리 감독하는 체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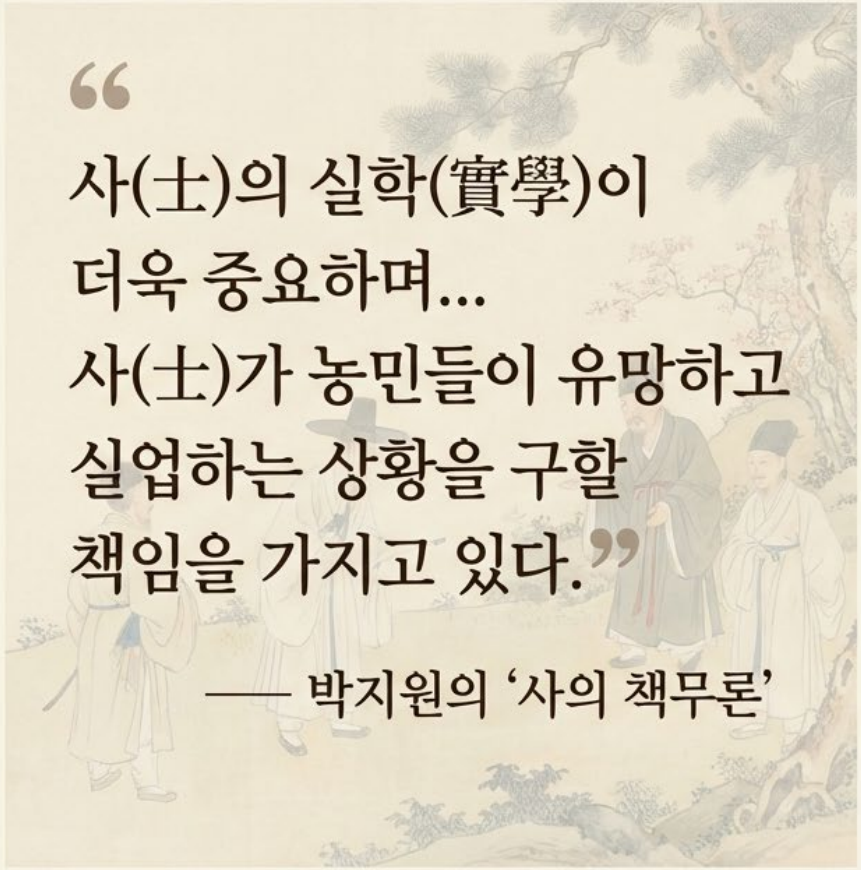
→ '수령의 권농(勸農) → 농관의 영농(營農)

박지원, 법전(法田)과 농사(農師) 설치론

沔陽雜錄 3冊
課農小抄 1면

면천군수 재직 당시 課農小抄 편집 작업 수행

課農小抄
沔川郡守臣朴趾源 編輯
經
神農氏作斲木爲耜揉木爲耒耨之利以敎天下蓋取諸益易繫辭
厲山氏之有天下也其子曰農能殖百穀夏之衰也周弃繼之故祀以爲稷禮記祭法○厲山氏一云烈山氏炎帝神農也其後世子孫有名柱者能殖百穀作農官因名農
帝曰棄黎民阻飢汝后稷播時百穀舜典
勃之在敉在敉旆旆未發穉穉麻麥幪幪瓜瓞唪唪奉



“사(士)의 실학(實學)이 더욱 중요하며... 사(士)가 농민들이 유망하고 실업하는 상황을 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 박지원의 ‘사의 책무론’

박지원의 문제의식: 농업 혁신의 주체 교체론

- 기존 조선 사회가 선진적 농업 기술의 담지자로 간주하던 노농(老農)의 한계 지적.
- 경험에 의존하는 맹목적 답습을 넘어,
- 체계적이고 진보적인 학문(農學)을 갖춘 선비(士)를 새로운 농업 혁신의 주체로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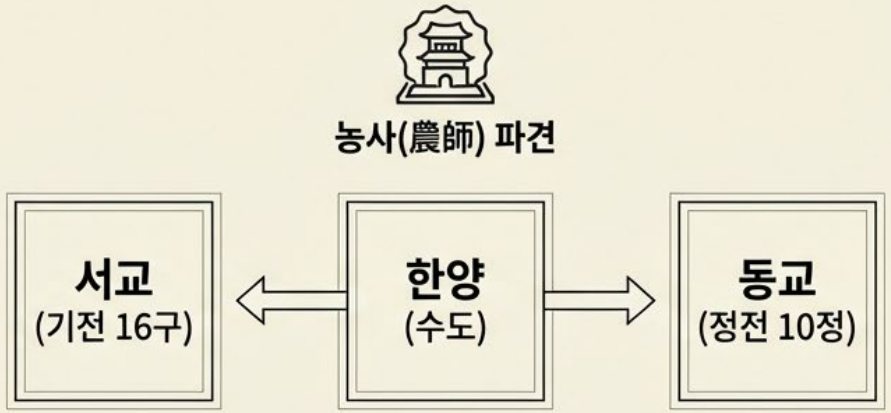
NotebookLM

박지원: <과농소초>의 '법전(法田)'과 '농사(農師)'

<과농소초> 전제

適爲十井之地...
亦足以畫箕田十六區...
擇深曉農理者 爲之師...

흥인문에서 왕심리까지 정전(井田) 10정을 만들고...
서강까지 기전(箕田) 16구를 구획하여...
농리(農理)를 깊이 깨달은 자를 사(師)로 삼아
사방의 자제를 모아 경작하게 하라.



법전(法田): 동서 양교에 설치하는 국가 주도의 실험 및 모범 농장.

농사(農師): 훈농(訓農)을 전담하는 관료. 수령(목민관) 출신으로 영(營)의 장관급 인사를 임명.

목적: 고방(古方)의 실효성 검증 및 전국 향읍(鄕邑)으로의 신농법 전파.

NotebookLM

課農小抄, 田制

- 각종 토지 지목(地目) 소개: 전답의 형태적 특성, 형성 과정의 특징을 중심으로
- 구전(區田), 포전(圃田), 위전(圍田), 가전(架田), 궤전(櫃田), 제전(梯田), 도전(塗田), 사전(沙田) 등 설명
- 서술 내용은 서광계의 農政全書에서 인용, 원 출처는 王禎農書

법전(法田)와 농사(農師) 설치론

- 법전: 기전(箕田)을 기준[式]으로 삼고, 정전(井田)을 모범[則]으로 삼아 동서(東西) 양교(兩郊)에 설치한 기관, 토지를 가리킴
- 농리(農理)를 깊이 깨달은 사람을 사(師), 즉 농사(農師)로 삼아 사방(四方)의 힘써 농사짓는[力田] 자제(子弟)를 모아 경작법을 창안하고 이를 사방에 전파하게 하는 임부를 부여함

향읍(鄕邑)의 농사(農師)

- 법전에서 개발하는 경작법은 고방(古方)을 살피고 편리(便利)함을 구하여 지금 행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실효성을 가진 경작법을 익힌 자제들이 각각 일향(一鄕)과 일읍(一邑)의 사(師), 즉 일향(一鄕)과 일읍(一邑)의 농사(農師)가 되는 방안
- 법전(法田)의 농사(農師)와 향읍(鄕邑)의 농사(農師)를 구별하면서 연계시키는 것

法田 설치의 구체적인 방법

- 흥인문에서 왕심리(旺尋里)까지 방(方) 10리(里)인데 마침 정전(井田) 10정(井)을 만들만한 땅
- 숭례문에서 서강(西江)까지 방 10리인데 또한 기전(箕田) 16구(區)를 구획할 만한 곳
- 사방의 힘써 농사짓는[力田] 자제로써 제도(諸道)에서 올라온 향군(鄕軍)이 곧 모두 건실한 상농부(上農夫)들이니 이들을 부릴 것

수령 과농의 실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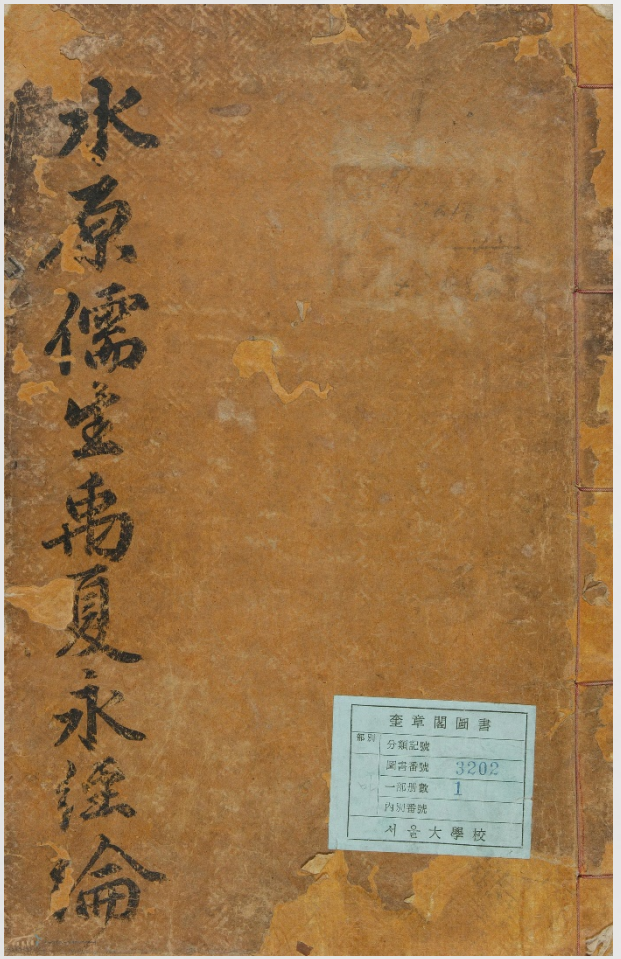
- 법전의 농사: 정전과 기전에서 훈농(訓農)하는 관에 해당하는 영(營)의 장관(將官)의 아래에 소속되는 사람
- 향읍의 농사: 제도에서 올라온 향군(鄕軍)=상농부(上農夫)
- 농학(農學)을 새롭게 밝히는 데에 동원

→ 수령(守令)의 과농(課農)에서 농사(農師)는 이를 향읍에서 실천하는 직임

우하영, 농관(農官)과 인장(隣長) 설치론

務本,水原儒生禹夏永經綸

田制 附農政, 千一錄 2輯



우하영: 〈천일록〉과 향촌 기반의 실증적 영농

> **古今時候不同 民功或異... 拾古方兼附己見作一統... 〈농가총람〉 서문**
>
> 고금의 기후가 다르고 백성의 노력이 다르니...
> 감히 고방(古方)을 수집하고 기견(己見)을 덧붙여 일통을 만들었으니 무본(務本)에 일조가 되길 바란다.

- 전통 〈농사직설〉의 맹목적 추종 거부, 당대 18세기 후반의 시후(時候)와 조건에 맞는 변통 강조.
- 철저한 실증: 자신이 직접 경영한 수전(水田) 13두락의 경험을 토대로 엄경, 번경, 서확 등의 농업 기술(己見)을 구체화.

四時時簒要抄
農集己見
古時候要抄叅 설명하는 양의 차이 唐宋韓邵
著和尙道貴畢瓦省覓 治是昔長者帶以而라지
熟外存套ㅋ曼須特幹聰哥由種子容布也子雜ㅋ
籃要步于朴利此当量异竹可다 懇切二其鉴忙
什 泰部里藏濕痒 自關두點的骨 蠍蝎倉兒
酒聽的說直到的地其草昌替失尊我昌家ㅋ藏更
濕烘 詣北極 體東概石倉群生操有時很雅
東萊北帶百 農者本務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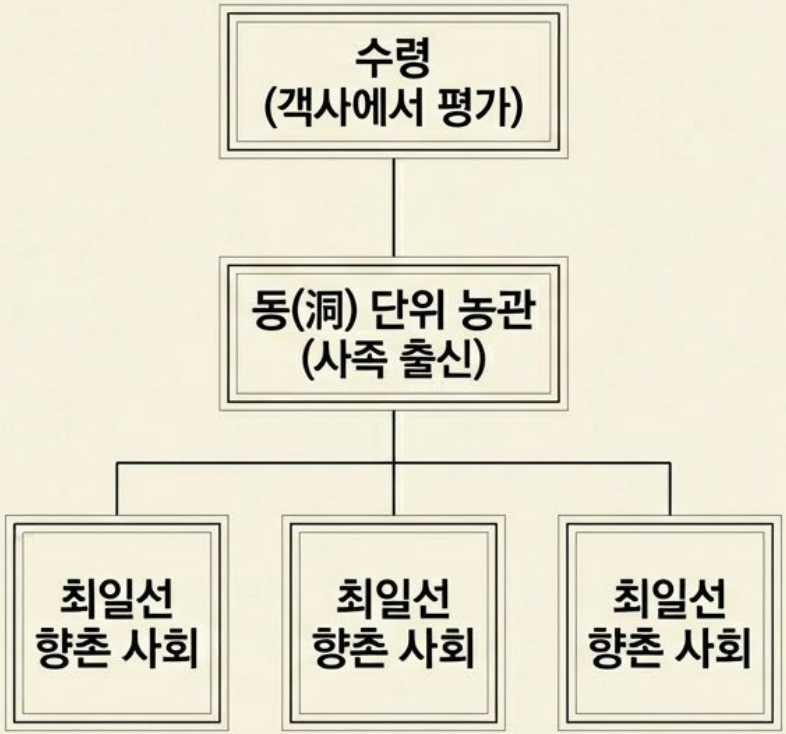
NotebookLM

우하영: 동(洞) 단위 '농관(農官)'의 선발과 포폄

<천일록> 전제 부농정

國典所載勸農官 廢棄久矣...
국전에 실려 있는 권농관이 사라지고 폐기된 지 오래되었으니 매우 한탄스럽다...
동(洞)의 사족(士族) 가운데 지벌과 능력을 지닌 자를 임명해야 한다.

- 설치 단위: 각 방(坊)과 동(洞) 단위의 최일선 향촌 사회.
- 운영 방식: 향약(鄕約)의 예를 따라 절목을 마련. 단순 사역이 아닌 예우를 갖춘 선발.
- 인사 고과: 매해 세초 수령이 객사에서 농관을 초청하여 예를 행하고, 성과에 따른 철저한 상벌(포폄) 부과 제안.



NotebookLM

농관(農官)의 차출

- 동(洞)에 거주하는 사족(士族) 중에서 지벌과 명성이 있고 일에 해박한 사람으로 농관(農官)을 임명할 것
- 교원(校院)의 재임(齋任)과 같은 방식으로 차출하고, 거행하는 범절(凡節)도 향약의 예를 따라 절목(節目)을 만들어야 할 것

→ 각방(各坊)과 각동(各洞)에 설치되는 농관(農官)은 주나라 전준(田畯)의 제도를 따른 것

농관의 직무와 우대 방안

- 매해 세초에 읍의 수령이 객사의 정청(正廳)에서 각동(各洞)의 농관(農官)을 초청하여 예를 실행하고 술자리를 갖추어 권농(勸農)의 조건들을 직접 신칙
- 종자와 양식이 없을 때 관(官)에 보고하여 종자와 양식 지급 가능하게 할 것
- 가을 수확 이후 10월 초순에 수령이 각동의 농관을 초빙하여 세초와 마찬가지로 의례를 갖춰 술자리를 갖고 일년 노고를 위로

인장의 임명

- 1동(洞)의 민호를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5가를 1통으로, 3통을 합하여 1린으로 삼음
- 15호가 단위가 되는 1린(隣)마다 농사에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일에 해박한 사람으로 인장(隣長)을 임명
- 촌락 단위에서 경운 등 농사짓기와 농촌의 생활 전반을 이끌어가는 책무를 부여 주장, 경우, 종자 등 변통, 맹병(盲病) 고과(孤寡)에 자녀 없는 경우 통(統)에 별록(別錄)

농관의 농형(農形) 보고 책무

- 가을 수확 이후 수령 초청한 위로 연회 자리
- 각동의 농관들로 하여금 일동(一洞)의 농형(農形)과 각호(各戶)의 작농(作農) 형지(形止)를 담은 성책(成冊)을 만들어 진정(進呈)
- 수령이 아무 동(洞) 아무 호(戶)의 농사 득실을 알 수 있있 되어 봉적(捧糴)과 수세(收稅)할 때 미리 잘 헤아릴 수 있을 것

사족 출신 농관 차출 주장의 의의

- 농법개혁과 농정개혁의 최일선에서 활약할 직임으로 농관(農官)을 설정

→ 사족의 향촌사회에 대한 기여와 책무를 증대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족 중심의 향촌질서의 회복을 주장하는 것

- 우하영의 향약 실시 주장: 향약의 4강령에 충효(忠孝) 강령 추가하여 강조, 향촌사회에서의 등급 즉 신분 차별을 강화하려는 것

제도의 정착을 위한 향약적(鄕約的) 접근

권위의 부여와 성과에 따른 상벌 시스템

명분 부여

사족들의 거부를 막기 위해 향교의 재임(齋任)을 대우하듯 향약의 예를 따라 절목 제정

수령과의 연계

매년 초 수령이 객사 정청에 농관들을 초청하여 예를 갖춰 대접하고 직접 농사를 권장

상벌 체계

봄가을 성과 평가 후, 실적이 뛰어난 자는 관찰사와 암행어사가 국가에 추천하여 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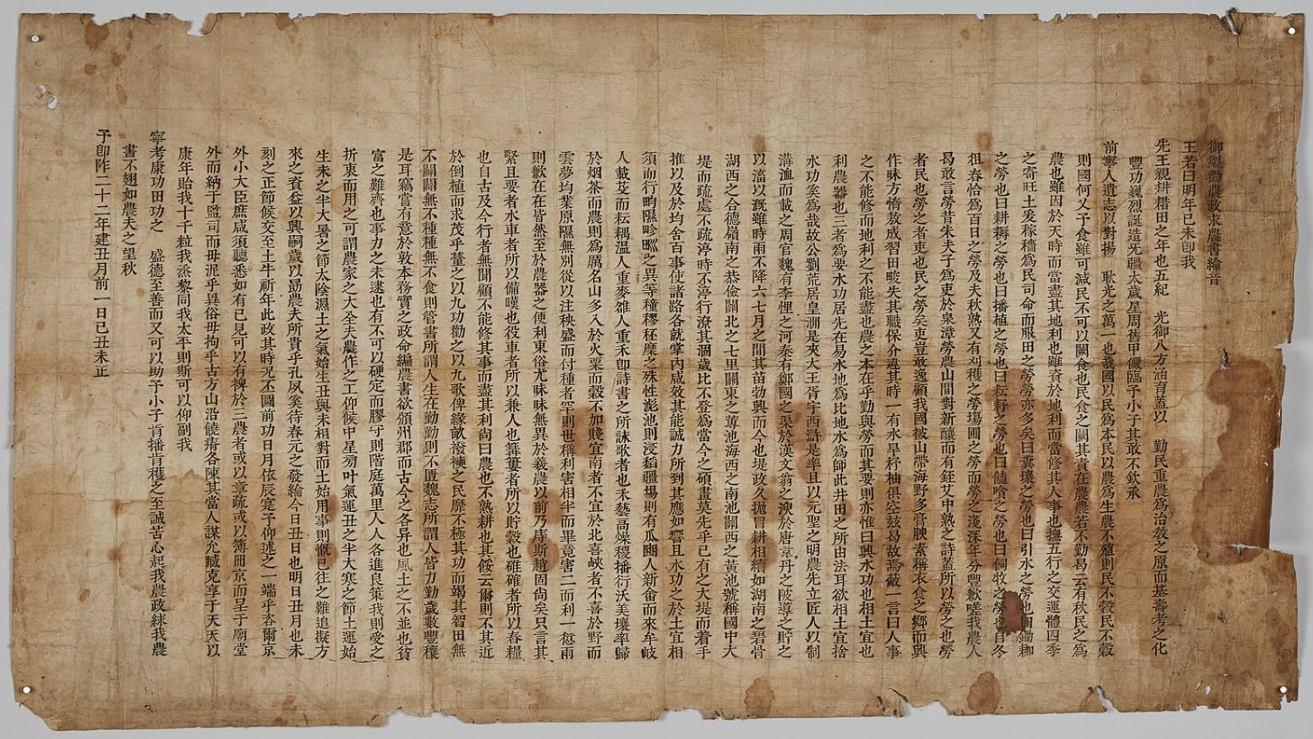
NotebookLM

전라도 응지인의 농관(農官) 설치론

- 1798년 11월 30일「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정조의 요청: 京外의 大小臣庶들에게 農政과 農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라는 것
- '농서대전' 편찬 추진, 편찬 흔적 사라짐
- 章疏, 상소 형식으로 제출
- 簿冊, 책자 형태로 제출

→ 전라도 응지인 應旨農書를 정조에게 올림

正祖, 권농정구농서윤음


御製勸農敎求農書綸音

王若曰明年己未卽我
先王親耕耤田之年也五紀　光御八方涵育蓋以　勤民重農爲治敎之原而基書考之化
豐功纘烈誕遵先瞻太歲星周舊甲儀臨于小子其敢不敬承
前寧人遺志以對揚　耿光之萬一也蓋國以民爲本民以農爲生農不勤則民不穀民不穀
則國何又予食雖可減民不可以闕食也民食之闕其責在農農若不勤曷云有秋民之爲
農也雖因於天時而當盡其地利也雖資於地利而當修其人事也禮五行之交運體四季
之寄旺土爰稼穡爲民司命而服田之勞勞亦多矣曰黍稷之勞也曰引水之勞也曰鋤耨
之勞也曰耕耨之勞也曰播植之勞也曰耘耔之勞也曰鎡錤之勞也曰倉冬
狙春恰爲百日之勞及夫秋熟又有刈穫之勞場圃之勞而勞之淺深年分豐歉墜我農人
易敢言勞昔朱夫子爲吏於梁潭勞農山間對新醴而有鉏艾中熟之詩蓋所以勞之也勞
者民也勞之者吏也民之勞矣吏豈敢逸願我國被山帶海野多膏腴素稱衣食之鄕而興
作昧方惰敎成習田畯失其職保介盡其時一有水旱狥柚倶空救荒故壽藏一言曰人事
之不能修而地利之不能盡也農之本在乎勤與勞而其要則永惟曰興水功也相土宜也
利農器也三者爲要水功居先在易水地爲師此井田之所由法耳欲相土宜捨
水功奚爲哉故公劉荒居皇澗是爰太王胥宇西詩是準且以元聖之明農先立匠人以制
溝洫而載之周官魏有李悝之河秦有鄭國之渠漢文翁之潊於唐韋丹之陂導之貯之
以瀦以溉雖時雨不降六七月之間其苗勃興而人也堤防久攩冒耕相續如湖南之碧骨
湖西之合德扶南之恭儉闢北之七里關東之蓴池海西之黃池號稱國中大
堤而疏慮不疏淳時不淳行潦其涸歲比不登爲當今之頓畫莫先乎已有之大堤而着手
推以及於均舍百事使諸路各就掌內咸效其能誠力所到其應如響且水功之於土宜相
須而行畎澮距川之異等種穋秬糜之殊性瀦池則泛瀹澮場則有瓜畹人新畬而來牟岐
人載芟而耘耦溫人重麥雜人重禾卽詩書之所詠歌者也禾黍高燥穬播行沃美壤率歸
於烟茶而農則爲膚名山多入於火粟而穀不加饒宜南者不宜於北喜峽者不喜於野而
雲夢均菓原隰無別從以注泆盛而付種者宇宙世稼利害相半而畢竟害二而利一愈雨
則歉在在皆然至於農罄之便利東俗尤昧昧無異於義農以前乃庳斯翹固尙矣只言其
緊且要者水車者所以備暵也役車者所以兼人也簉婁者所以貯穀也碓碓者所以舂糧
也自古及今行者無閒願不能修其事而盡其利尙曰農也不熟耕也其儉云乎則不其近
於倒植而求茂乎蓳之以九功勑之以九歌俾繹歟瘝構之民靡不極其功而塲其習田無
不闢闢無不種種無不食則管書所謂人生在勤勤則不匱魏志所謂人皆力勤歲穀豐穰
是耳爲當有意於敎本務實之政命編農書欲頒州郡而古今之各異也風土之不並也貨
富之難齊也事力之未逮也有不可以硬定而膠守則階庭萬里人人各進良策我則受之
折衷而用之可謂農家之大全夫農作之工仰候中星芻叶氣運丑之半大寒之節土動始
生未之半大暑之節太陰濕土之氣蟠生丑與未相對而土始用事則慨已往之難追擬方
來之賚食以興嗣歲以勗農夫所貴乎孔夙奚待春元之發綸今日丑日也明日丑月也未
刻之正節候交至土牛新年此政其時況丕國前功日月依辰窆于仲建之一端乎恭賜京
外小大臣庶咸須聽悉如有己見可以有裨於三農者或以章疏或以簿冊京而呈于廟堂
外而納于監司而毋泥乎具俗毋拘乎古方山沿饒瘠各陳其當人謀允臧克享于天天以
康年貽我十千粒我烝黎同我太平則斯可以仰副我
寧考慶功田功之　盛德至善而又可以助予小子肯播肯穫之至誠苦心欽我農政綵我農
書不翅如農夫之望秋
予卽阼二十二年建丑月前一日己丑正

전라도 응지인(應旨人): 정조의 구언과 지역 농정의 자각

- 18세기 후반, 정조의 구언(求言)에 대응하여 전북 지역 유생 및 전현직 관료들이 올린 '응지농서(應旨農書)'와 상소문.

- 단순한 농학 이론이 아닌, 부세(전세 불균등), 궁방의 무토면세전 수세 폐단 등 구체적 향촌 모순의 해결책으로서 농정 개혁 요구.

- 중앙의 '농서대전(農書大全)' 편찬 프로젝트에 부응하여, 지역(호남)의 구체적 농업 현실과 기술을 밀착하여 정리.

NotebookLM

남원 전 현감 장현경(張顯慶)

- 전준(田畯)을 선택 임명하여 근실한지 태만한지 살펴서 상을 줄 것
- 권농의 한 방책으로 종곡(種穀)의 분급(分給)에 주목: 환곡을 운용하면서 가을에 돌려받을 때 종자로 활용할 것을 따로 보관하고 이때 호명(戶名)을 기록해두었다가 봄에 분급할 때 호명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방식

→ 수령의 지시를 받아 마을에서 농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도록 설정된 '농관'이 담당할 일

남원 유학 장윤

- 정조: 장윤이 정리한 남원 지역의 작업 일정에 따라 적시(適時)에 수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김매기와 타작 등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작업을 하나 하나 조목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
- 정조: 해당 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따로 보개(保介, 농사일을 감독하는 직임)로 임명하여 가을 수확한 후에 근실함과 태만함을 헤아려 감영에게 보고한 다음 장계로 보고하게 함

→ 수령으로 하여금 따로 보개(保介, 농사일을 감독하는 직임)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남원 유학 노익원

- 읍(邑)에 농사(農師)를 두어 만약 농사를 일으키고 농사를 권장하는 실효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 이때 농사의 임용은 지벌(地閥)에 구애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점으로 지목함
- 농사(農師) : 농사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직임 : 수차(水車) 제작, 제당(堤塘)을 축조하는 일, 부종(付種) 즉 직파(直播)를 권장하는 일 3가지를 무농(務農)의 커다란 요체로 파악

남극엽의 농정개혁론

- 勸農의 大本 두 가지 강조: 德敎와 節儉
- 治田法 실행: "橫縱과 曲直으로 각각 地勢에 隨하게 하고 深淺과 高卑으로 각각 水源에 因하게 하여 하여금 廢棄하지 않게 하는 것"
- 진황지 개간의 장려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장책 제안: 환기전에 대한 집복을 하지 않는 것과 화전세를 6등으로 정해서 수세하는 것, 이를 영구적으로 시행할 것.

담양의 시비법(남극엽의 농서부책)

- 熟糞法으로서의 煮糞法 : 液肥(?) “每糞에는 각각 骨을 넣어 같이 煮하는데 牛糞에는 牛骨을 사용하고, 馬糞에는 馬骨을 사용하는 것이다. 人糞에 骨이 없으면 髮을 少許 정도 넣어 대신한다. 무릇 布種하는 者가 假令 一區에 熟糞 一升를 사용하면 그 이로움이 百倍이다”
- 참고: 제민요술 분종법: 소 양 등의 뼈를 삶아 낸 즙으로 작물의 종자에 묻히는 漬種法

남극엽의 전준(田畯) 임명 주장

- 적임자 임명의 조건; 근실하고 재주가 있으며, 一道의 농사를 두루 파악할 수 있고, 농민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인물
- 전준, 권농관의 직무: 봄의 경작 상황 파악과 조력 보충, 제언 소착과 저수, 洑의 축조와 관리, 가을 수확 점검, 균등한 分災, 白稅 즉 근거없는 부세의 방지 등

→ 새로운 지역 농정의 실무 담당자 설치론

서유구, 둔전(屯田)과 전농관(典農官) 설치론

1820년 순조 양전(量田) 추진 의상경계책(擬上經界策)저술

‘광둔전이부저축(廣屯田以富儲蓄)’: 둔전 설치, 전농관 임명 등을 농법 개발, 보급과 연관시켜 설명

19세기 초반 : 徐有榘의 林園經濟志 편찬 : 達成 徐氏 집안의 家學 아버지인 徐浩修의 海東農書, 할아버지인 徐命膺의 本史, → 農法改良, 稻種 정리 보급 : 농업기술의 綜合을 완수, 種藷譜: 고구마 재배법 정리

林園經濟志

總目

司錄

奎章閣圖書
分類記號
圖書番號 6565
一部冊數 52
內別番號 1
서울大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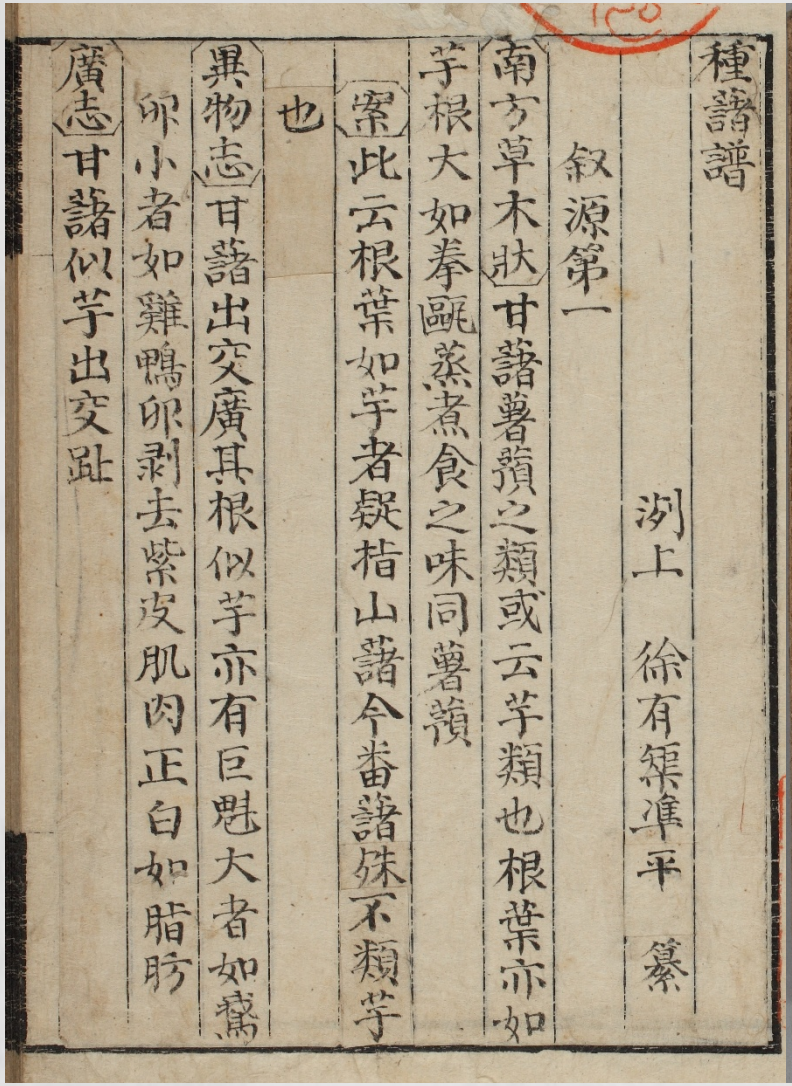
朝鮮總督府之書
서울大學校圖書

林園十六志例言

一凡人之處世有出處二道出則濟世澤民其務也處則食力養志亦其務也顧濟世之術一應政教無非所需固多備述之書至於鄉居養志之書尠有裒集者在我邦僅有山林經濟一書然中多冗瑣所採亦狹人多病之故於此畧採鄉居事宜分部立目搜羣書而實之以林園標之者所以明非仕宦濟世之術也

一凡耕織種植之術飲食畜獵之法皆鄉居之需也占候以勤農相基以卜築及夫殖貨營生庀器利用

種藷譜


種藷譜

叙源第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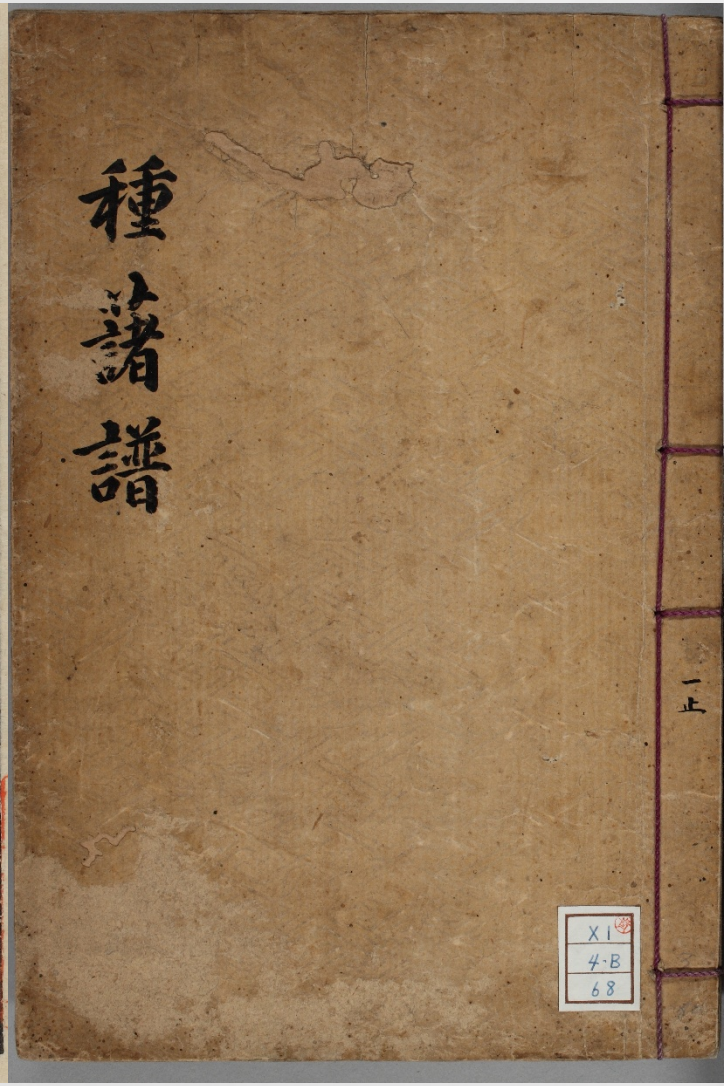
浏上 徐有榘準平 纂

南方草木狀甘藷薯蕷之類或云芋類也根葉亦如芋根大如拳甌蒸煮食之味同薯蕷

案此云根葉如芋者疑梧山藷今番藷殊不類芋也

異物志甘藷出交廣其根似芋亦有巨魁大者如甕卵小者如雞鴨卵剥去紫皮肌肉正白如脂肪

廣志甘藷似芋出交趾


種藷譜

一止

XI
4-B
68

서유구의 둔전과 전농관(典農官) 설치론

출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의상경계책(擬上經界策)」

조선 농사시험장 구상의 집대성과 '명농자(明農者)'의 발탁

경사둔전(京師屯田) 설치

한양에 모범 시범농장(둔전)을 설치하여 농법과 수리법을 실험·개발한 뒤, 전국 지방 관청과 군영으로 확대

전농관(典農官) 임명

둔전의 실질적 운영을 맡는 직책. 단순한 양반 관리가 아닌, 농사일에 노련한 부민(富民), 즉 '명농자'나 '역농자(力農者)'를 실무 책임자로 임명

NotebookLM

국가의 저축<국가 재정>을 풍성하게 하려면?

- 지력(地力)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전야(田野)에 남겨지는 이익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
- 경종(耕種)을 제대로 된 법(法)에 따라 수행해야 함

→ 경파수예지법(耕耰樹藝之法)을 가르치기

- 고상(故常) 즉 이전의 일상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색사(色辭) 즉 안색과 말투로만 타이르는 것이 불가능함

경파수예지법(耕耨樹藝之法) 교시법

- 식(式)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효(效)를 거두어 따르게 해야 한다는 것
- 새롭게 변통한 농법(農法)을 보여주고 그 농법으로 실효(實效)를 거둘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농민들이 스스로 따라올 것이라는 주장

→ 둔전(屯田) 설치론, 전농관(典農官) 설치론

둔전(屯田), 전농관(典農官) 설치론

- 치전(治田), 종곡(種穀)의 원리를 찾아내어, 농민들에게 교묘함과 졸열함의 차이, 선부(善否)의 크게 차이나는 양상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함

→ 바로 농사를 시험하여 그 결과를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농사시험장의 성격에 걸맞는 것, '**조선농사시험장**'의 구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경사둔전의 운영

- 경사둔전(京師屯田) 4곳, 매 1둔(屯)에 농무(農務)에 밝은 사람 1인을 전농관(典農官)으로 삼아 그 일을 영략(領略)하게 함, 농법(農法), 수리법(水利法) 등을 시험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도팔도로 보급하는 곳
- 경사둔전에 경우(耕牛)-영남, 벼농사-영남 좌도인, 밭농사-해서관서인 활용

사도팔도, 주부군현으로 확산

- 몇 년 지나 성과를 거두면 사도팔도(四都八道)로 확장, 수륙절도영(水陸節度營) 및 열읍도호부(列邑都護府)에도 편의에 따라 차례로 둔전을 설치
- 경외(京外) 둔전(屯田)의 전농관(典農官) 가운데 실적(實蹟)이 탁이(卓異)한 자를 목민관으로 삼을 것

18-19세기 농관 설치 논의의 역사적 의의

근대적 농업체제 변동을 향한 중요한 역사적 초석

- 18-19세기 조선 농업체제의 구조적 변동(생산력 발달, 요호 부민의 등장)을 정확히 반영한 시대적 산물.
- 완벽히 제도화되지는 못했으나, 이들의 구상은 훗날 개항기 '농무목축시험장(1884)' 및 대한제국의 '권업모범장' 설립으로 이어지는 사상적 기반이 됨.
-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치열한 농정 개혁 의지가 지닌 근대적 지향성 재확인.

18-19세기 농관 구상 → 1884 농무목축시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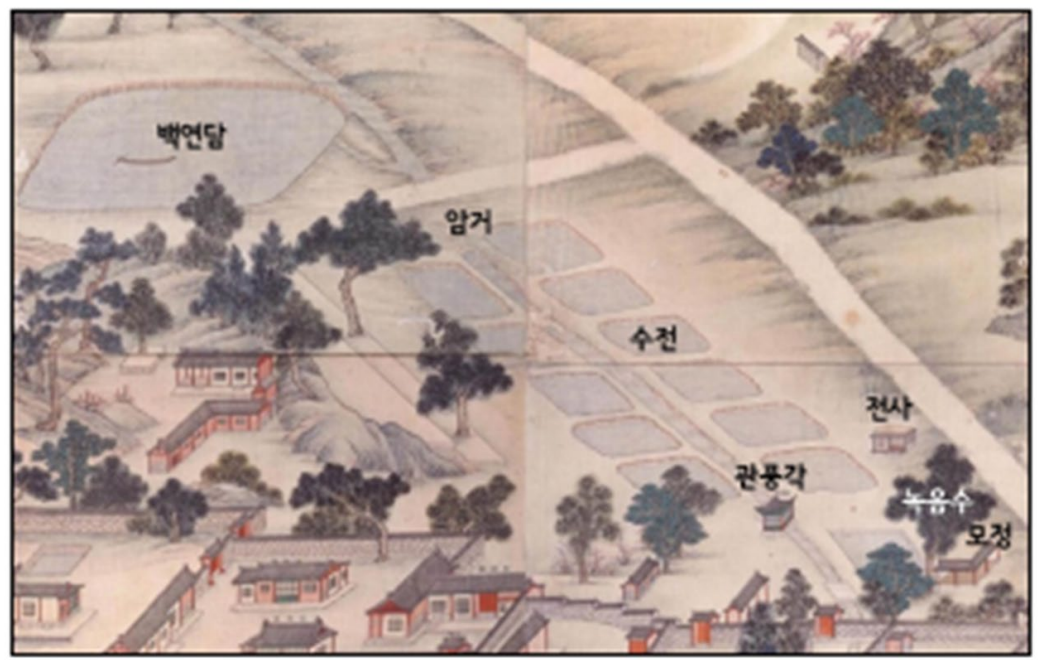
NotebookLM

19세기 후반 개항기 조선의 근대적 농업체제로 전환 움직임

- 1884년 최경석 농무목축시험장 개설 운영
- 서양 농업기술 도입 추진(일본 영향): 이른바 동도서기론
- 개항 이후 30여 종의 농서 편찬
- 1880년대: 安宗洙의 農政新編, 鄭秉夏의 農政撮要, 池錫永의 重麥說
- 蠶業, 養鷄, 果樹 등에 특화된 농서 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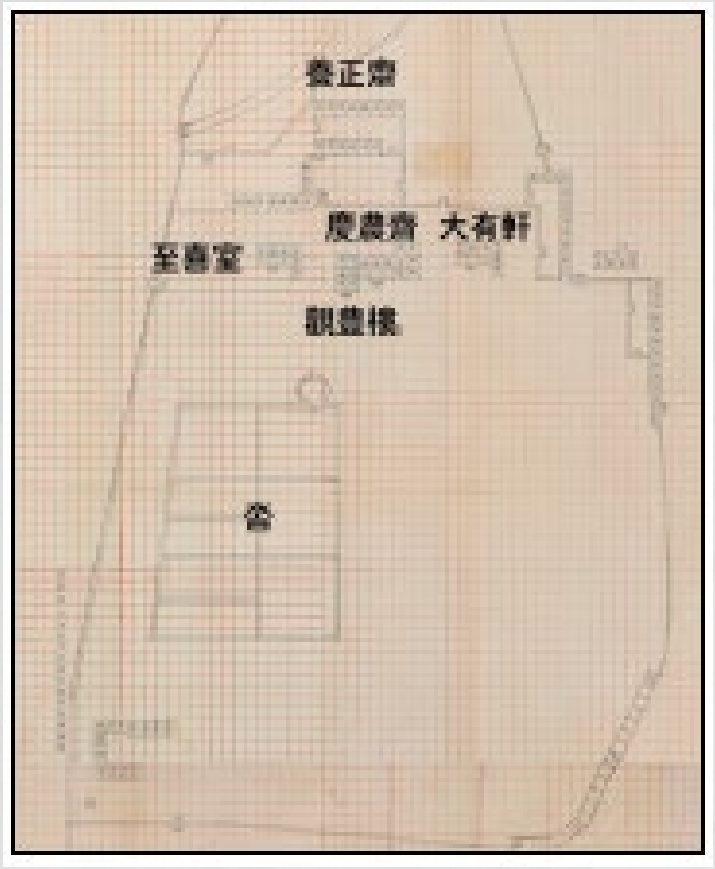
19세기 후반 고종의 권농책

- 권농교, 권농윤음 반포: “매해 孟春에 윤음을 발포하는 것은 我家의 成法임”(1864년 권농윤음)
- 1871년 親耕 실시: 영조의 친경을 모범으로 준행함, 국왕, 종실, 재신 등 참여: 農牛, 農器, 起耕, 開墾 등 강조



동궐도의 수전(水田)

경복궁 후원에 勸農 공간 조성 (북궐후원 도형)



- 1885년 이후에 건청궁, 집옥재 등을 國政 실행 공간으로 활용
- 신무문 외곽 후원 지역에 1893년 慶農齋, 大有軒 등 축조

→ 국왕 중심의 권농책 수행 : 근세 농업체제의 중심 부문 지속 + 근대 농업체제 형성과정, 두 부문의 접합, 융합

농무목축시험장소존곡약종(규장각 소장)

맺음말- 1880년대 근대적 농업체제를 만들기 위한 조선의 움직임

- 청나라와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하여 근대적 변모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조선의 국가체제, 농업체제에 반영하려는 것 – 영선사, 조사시찰단
- 서양의 곡종(穀種), 채종(菜種), 농기구(農器具)를 직접 도입하여 이를 조선에 적합하게 만들려는 것 – 1884년 최경석 농무목축시험장 개설 운영

→ 18세기 후반 이후 농관(農官)을 설치하여 농정을 담당하고, 농법과 수리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려는 논의의 현실화